



기고 이 선 호 나주소방서소방장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금지

우리는 길을 걷다보면 빨간색으로 칠해져 설치된 소화전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다. 시민들에게 있어서 길 한가운데에 덩그러니 설치된 소화전은 무관심의 대상일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소방공무원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도 같다. 소방공무원들이 화재를 진압할 때 필요한 소방력은 인원(소방공무원), 소방장비, 물(소방용수) 3요소가 있다.

이 중에서 물 즉, 소화전은 화재 발생시 이를 진압하는 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소방공무원은 화재가 발생하면 현장 도착 즉시 이런 말을 하게 된다. "화재현장 인근 소화전 점검!" 일반 시민들은 아마도 잘 모르겠지만 이 작은 소화전이라는 녀석은 소방공무원들의 현장 활동에 정말 중요한 소방용수시설이

다. 화재현장에서 소방차에 가득 담겨져 있는 물이 다 소진되었을 때 소방차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소화전을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적시에 사용하지 못하여 화재진압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소방기본법 제 25조 3항에 '소방 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 제 33조 3항에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水管)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곳에는 주차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위반 시 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 공간 부족 및 늘어나는 차량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소방서와 언론에서는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소화전 주변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으며, 자신의 재산과 소중한 사람들을 생각하여 소화전 주변에 불법 주·정차 금지가 당연시 되는 날까지 시민 의식이 더욱 성장하기 바라고 있다.

社 說

장사시설 확충 서둘러야

장례문화가 달라지면서 10명 중 8명 이상이 매장 대신 화장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도 화장률이 84.6%로 최종 집계됐다고 20일 밝혔다. 화장률은 화장장 시설 수를 해당연도 총 사망자 수로 나눈 비율이다. 1993년(19.1%)에 비해 약 4.4배 상승한 수치다. 2016년(82.7%)과 비교해선 1.9%p 늘었다. 국내 화장률은 1993년에는 19.1%에 그쳤지만 매년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80.8%)에 처음으로 80%를 넘어섰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97.7%가 화장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6.2%였고,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82.2%였다. 화장률은 전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70대(84.6%)와 80대 이상(78.1%)에서 2016년에 비해 각각 3.1%p, 2.7%p 오르는 등 연령대가 높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성

별로는 남성 87.2%, 여성 81.6%로 조사됐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는 부산이 93.0%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인천 92.4%, 울산 90.8%, 경남 90.5% 등 9개 시·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총 59개소이고 화장로는 총 350개다. 연간 최대 화장능력은 개장 유골 전용시설 제외하고 전국 58개 화장시설에서 연간 31만 4280건에 달한다. 이는 1일 평균 873건에 해당 하는 수치다. 다만 하지만 시도별로 서울, 부산,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화장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계 당국은 화장 수요의 증가에 철저히 대비해 만에 하나 화장지체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막아야 할 것이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소방교육훈련 실시로 유사시 신속 대처

손자병법에 초윤장산(礎潤張傘)이란 얘기가 있다. 초가집 주춧돌에 이슬이 맺히면 비가 올 것이니 우산을 준비하라는 내용이다. 손자는 전쟁을 하기 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가였다. 재난발생도 마찬가지다. 비가 오기 전 젖은 주춧돌의 징후처럼 사전에 여러 징조나 징후를 보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위기와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말썽을 일으키는 기기들은 전문가를 불러서 바로 고치고 작업자의 컨디션은 문제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관리적 측면에서도 작업 위험성은 없는지, 작업전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은 실시했는지, 난간 작업시 안전장치는 잘 되었는지, 용접 작업시는 소화기나 소화호스를 전개해 놓고 있는지 등 체계적인 확인 및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사업장에서는 수시로 재난대응 안전교육 및 훈련

을 해야한다. 왜 교육훈련을 해야 할까? IQ를 살펴보면, 영무세 30, 고양이 50, 개 55, 코끼리 60, 돼지 70, 침팬지 96 정도라고 한다. 폐닉에 빠지면 영무세 IQ가 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 재난현장에서 폐닉(갑작스런 불기행력적인 상황에 몸이 움직이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지지 않기 위해 평상시 반복적인 숙달이 필요하다. 훈련시에는 임무를 나누어 실시해야하고 자신을 임무를 확실히 숙지하고 이행해야 한다. 폐닉 사례로는 아이를 안고 나왔는데 버스를 안고 나온 경우, 소화기를 안전핀을 뽑고 분사해서 불을 꺼야하는데 불속으로 던져버리는 경우 등이다. 심지어는 소방관도 어미어미한 화염이 분출하고 폭발이 일어날 경우 폐닉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호랑이 한테 물러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 수 있다고 했듯이 재난현장에서는 평소 교육 받은 대로 최대한 냉정하고 침착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인동진 / 무안119구조대 부대장

'블랙아이스' 미리 알고 대비하자

올겨울 지구온난화 여파로 전 반적인 겨울기온은 크게 올라갔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일시적인 한파로 유독 기온 변동이 심한 이때, 우리는 무엇을 경계해야 할까? 지난 12월 장흥군 남해고속도로 영양 방향 장동 2터널 인근에서 차량 17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잇따라 발생하는 겨울철 교통사고의 원인, 우리가 경계해야 할 주범은 '블랙아이스(Black Ice)'이다. 블랙아이스란 도로 표면에 코팅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기온이 갑작스럽게 내려갈 경우 한번 녹았던 눈 또는 비가 얼면서 발생한다. 여기에 아스팔트 표면의 틈 사이로 눈과 습기가 공기 중의 매연, 먼지와 뒤섞여 스며든 뒤 겉게 얼어붙어 검은 색을 띠기에 잘 보이지도 않는다. 이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블랙아이스의 대처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평소보다 감속주행을

하도록 한다. 블랙아이스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평소보다 충분히 감속하고 안전거리를 넉넉히 확보해야 한다. ▲둘째, 얼어붙은 길에서 급조작을 하면 차가 미끄러지거나 스핀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급회전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제동을 할 때에는 여러 번 나누어 브레이크를 밟도록 한다. ▲셋째,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점검하고 적정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이때 공기압은 타이어 제조사 권장 공기압의 80%이상을 유지하도록 한다. ▲넷째, 만약 차가 미끄러지는 상황이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어야 한다. 반대방향으로 핸들을 틀면 수막이 제거되지 않아 제동력이 더 떨어지고 중점을 잃고 도는 스핀현상이 생기기 쉽다.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맞아 국민 모두 안전운전으로 교통사고 없는 행복하고 즐거운 설연휴가 되기를 바란다. 이준우 / 나주 빛가람파출소 순경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故事成語

尺璧非寶 尺璧非寶
尺 자 척 尺璧非寶
璧 구슬 벽
非 아닐 비
寶 보배 보
▷뜻: 지름이 한 자나 되는 보옥(寶玉)도 시간(時間)에 비하면 보배라고 할 수 없음.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 222-5547
팩스 (062) 222-5548
광고국 (062) 222-5544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010-5330-553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계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민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유통망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화융성 문화가 있는 삶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